

##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sup>1)</sup>

-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에 비해 약물의 민감도나 위험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일반의약품 또한 생물학적, 화학적 효과를 가진 이상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음.
- 국민들은 관행상 일반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자가 판단에 의한 의약품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의 기회가 많은 편임.
- 우선, 의약품 광고를 통해 약에 대해 쉽게 접하여 왔기 때문에 자가 판단에 의한 의약품 이용에 대해 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 또한 의약품의 상업화가 추구하고 이를 위한 대중매체 및 판촉활동은 의약품 수요를 부추겨 일반인의 의약품에 대한 경시와 의존도를 높여 자가 판단에 의한 일반의약품 이용의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일반의약품의 남용과 혼합사용 및 습관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로 작용 될 수 있음.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2009년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지」에 발표한 “소비자와 약사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행태”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일반의약품의 주의사항이나 경고문을 인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의약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 처방으로 일반의약품을 장기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동 연구에서 2009년 1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 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

1) 본 자료는 민영미, 설재웅, 오희철, 이은숙, 2009. “소비자와 약사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지」, Vol.2 no.2, pp. 114-121 을 정리한 내용임.

## 1.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지식

구 분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일반의약품은안전하다	91(38.4)	104(43.9)	42(17.7)
의약지식이 충분하다	52(22.0)	74(31.2)	111(46.8)
의약품 부작용	162(68.6)	42(17.8)	32(13.6)
효험에 대한 과잉 기대	63(26.8)	85(36.2)	87(37.2)

- 소비자들은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17.7%는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
- 의약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46.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68.8%가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
-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과잉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6.8%

## 2. 지식 수준

특 징	구 분	알고 있음 (%)	모름 (%)
해열진통 소염제 및 종합감기약	사용방법	178 (78.1)	50 (21.9)
	경고문	113 (50.2)	112 (49.8)
	약물상호작용	112 (49.1)	116 (50.9)
	장기간 사용에 따른 경고	160 (73.4)	58 (26.6)
소화제	사용방법	145 (73.6)	52 (26.4)
	장기간 사용에 따른 경고	106 (52.0)	98 (48.0)
자양강장드링크제	사용방법	72 (41.1)	103 (58.9)
	나이제한	68 (38.6)	108 (61.4)

- 소비자의 경우 해열진통소염제와 종합감기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고문 내용에 대하여 49.8%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약과 동시에 복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50.9%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소화제의 경우도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48%가 모른다고 응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화제 남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었음.

- 자양강장드링크제도 복용법을 정확히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가 58.9%였으며, 연령제한에 대한 내용을 61.4%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자양강장드링크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광고 등의 영향으로 피로 회복을 돕는 가벼운 음료정도로 생각하고 용법과 용량 및 연령제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음.

구 분	있다	없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험	53 (24.8)	161 (75.2)
해열, 소염제	13	
종합감기약	6	
소화제	2	
자양강장드링크제	12	
연고, 반창고	9	

- 일반의약품을 습관적으로 장기 사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문항에 소비자들의 24.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장기사용의약품의 종류로는 해열소염진통제가 가장 많았고(31.0%), 다음으로 자양강장드링크제(28.6%), 파스와 연고류 및 종합감기약 순으로 응답하였음.